

책을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공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면 공부하시기 편안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메모지를 꺼내서 몇 가지 추천 할 만 책들을 적어서 이영숙씨에게 주었습니다. 분위기 한결 부드럽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채소와 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 중심의 무침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 부인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온통 건강에 대한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마치고, 우리들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름 날씨에 에어컨 사용을 못하는 관계로 부채 들고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박목사님 부부는 서로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권 선생님. 현재 저의 부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은 맞나요?”

“에....아까 주신 서류에서도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손을 놓고 그날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기는 것도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같이 산책을 나오자고 한 것은 이영숙씨에게 몇가지 알려드릴 체조가 있어서 나온 것 입니다. 3가지 입니다. 나무 밑에서 하는 손뼉치기 즉 고려 시대에 수박권법으로 무인들이 사용했던 것을 응용하여 만든 것 입니다. 이렇게 소나무 밑에서 제가 하는 방법으로 일일3회 1회에 200회를 계속하시어야 됩니다. 암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저 산소와 저 체온입니다. 이 운동만으로도 온 몸에 땀이 나고 온몸으로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갈 것 입니다”